

社會의 病的 現象 (二)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社會는 有機體다

社會도 病的 生活을 經驗한다 함은 社會를 有機的 生物로 觀察하는 同時에 認定하는 것입니다. 이 觀念은 近世 社會學界에 임의 普及이 되얏스매, 우리는 이 問題를 特別히 說明할 必要가 업습니다. 그럼으로 現代 社會生活의 病的 現象만 觀察하려 합니다.

그러나 社會의 病 그것의 性質을 研究하라면 社會 그것의 性質도 暫間 研究할 必要가 잇습니다. 社會만 特히 研究하는 學問을 (『플라톤』以後에 『政治學』이라 稱하얏든 것을) 社會學이라 稱하고 그를 一種의 獨立的 科學으로 함은 우리가 임의 아는바와 갓치 法國의 『오규스트 콩트[오거스트 콩트]』이며, 社會를 有機的 生物로 觀察하고 이 觀念을 科學的으로 定限함도 亦 이 學者입니다. 모든 有機物을 個體的과 集合的 有機物로 分類하고 社會를 後者에 屬한 社會的 有機物이라 稱하얏습니다. 宇宙 全體에 互相 從屬法則이 通用되는 것 갓치 各 個體的 有機物 卽 植物로부터 原始動物 乃至 人類까지에 라도 이 法則이 通用되야 單合全體의 生活이 된다 하얏습니다. 그런데 互相 從屬法則이라던지 單合全體의 生活은 우리 人類社會 成立의 基本條件입니다. 그럼으로 社會는 總有機物界의 發展徑路를 繼續하는 一有機的 生物이라 하얏습니다.

그이의 時代는 生物學界의 大革新으로 因하야 人類의 宇宙觀과 人生觀이 一新하든 時代입니다. 쾨테[괴테](德)와 라마약[라마르크](法)가 進化的 現象을 發見한 後 사윈[다윈](英)이 이 法則을 根本的으로 說明할 새입니다.

宇宙를 構成하는 各物의 『種類』는 天神이 意識的으로 各々 創造함이 안이오, 單純한 原始物이 發展되고 變化하야 自然히 形成된 것이라 하든 時代입니다(우리 東亞에서는 宇宙觀의 始初가 進化的입니다. 太極說과 五行說은 舊約 創世紀에 比하야 進化論의 色彩를 拭엿습니다.). 콩트[콩트]의 社會觀도

이思潮에 順應하여 社會學을 生物學의 一部分으로 觀하얏습니다. 其後 細胞가 發見되자 『스펜서[스펜서]』, 『릴리엔펠트[릴리엔펠트]』, 『쉐플레[셰플레]』 등의 學者들은 一觀念에 不過하든 콩트의 有機體說에 純全한 生物學的 基礎를 與하고 社會를 生物의 有機體와 同種인 物로 觀하얏습니다. 細胞도 一有機的 生物이다. 이와 갓흔 多數의 生物이 單合되야 形成되는 人體도 有機的 生物이다. 그와 갓치 社會는 多數의 生物(人類)이 團合되야 形成된 一大生物이다. 社會의 細胞는 人體다. 故로 人은 社會的 原子라 稱할 수 있다. 動物體가 生長하는 同時에 各細胞의 官能이 分化되는 것 갓치 社會도 發展될 사록 各人의 生活이 分業的으로 된다. 動物體가 內外細胞層으로 區別되야 外細胞層은 表面에서 그 身體와 外界 間의 互相關係를 掌하고, 內細胞層은 그 身體의 內的 生理作用을 掌하는것 갓치, 社會體에도 外로는 戰鬪階級이 잇서 外禍를 防禦하고 內로는 婦女와 奴隸가 잇서 生產業에 從事하얏섯다. 生物體의 外細胞層에서 그 全體의 生活을 整理하는 神經組織이 生하는 것 갓치 社會體의 戰鬪階級에서는 政事階級이 生하얏다. 生物體의 內外細胞層 間에 中細胞層이 성기여 滋養物을 循環식히는 血脈組織이 되는 것 갓치 社會體에도 政事階級과 生産階級 外에 循環融通 機關인 商事交通階級이 生기엿다 하얏습니다.